(748)

주체107
(2018) 11

차 례

표지: 우리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이 확립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사진 조선중앙통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인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고 주체조선의 무궁강대한 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글 박병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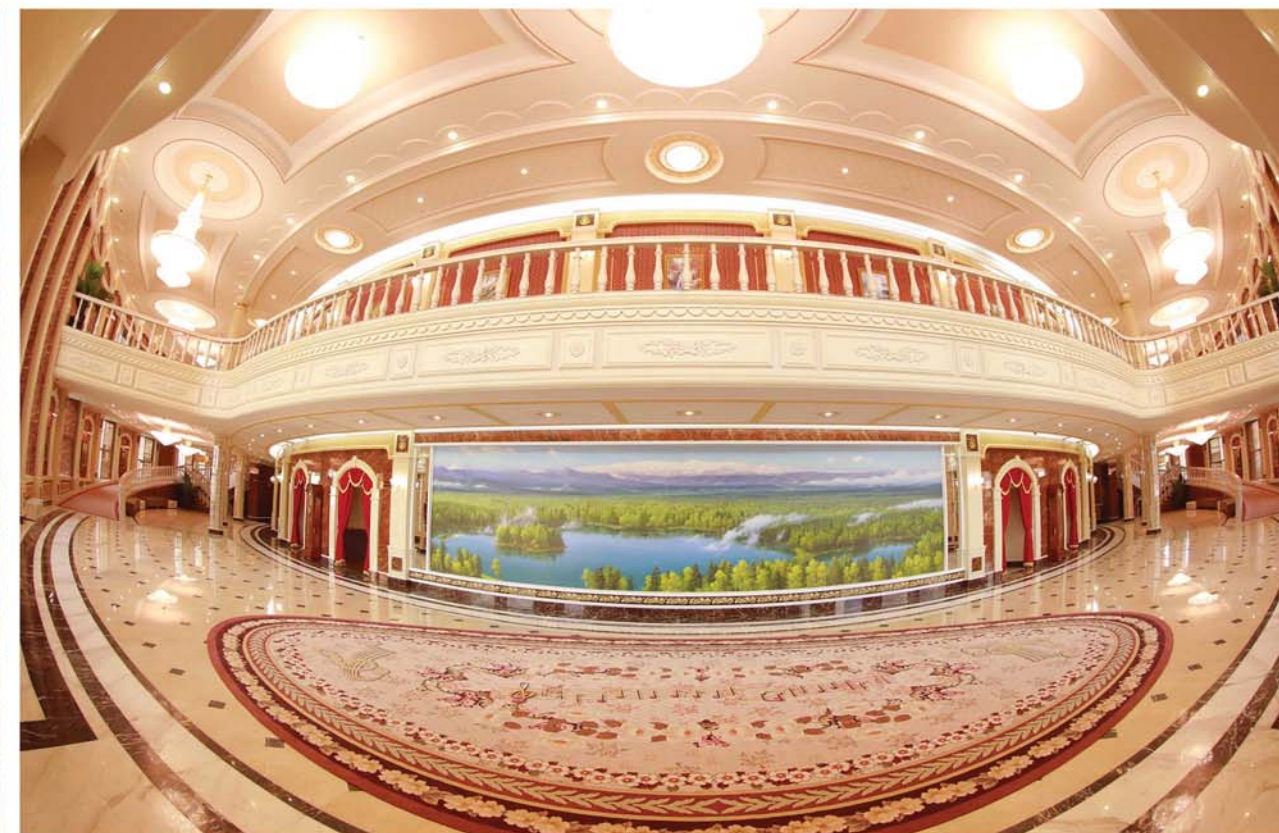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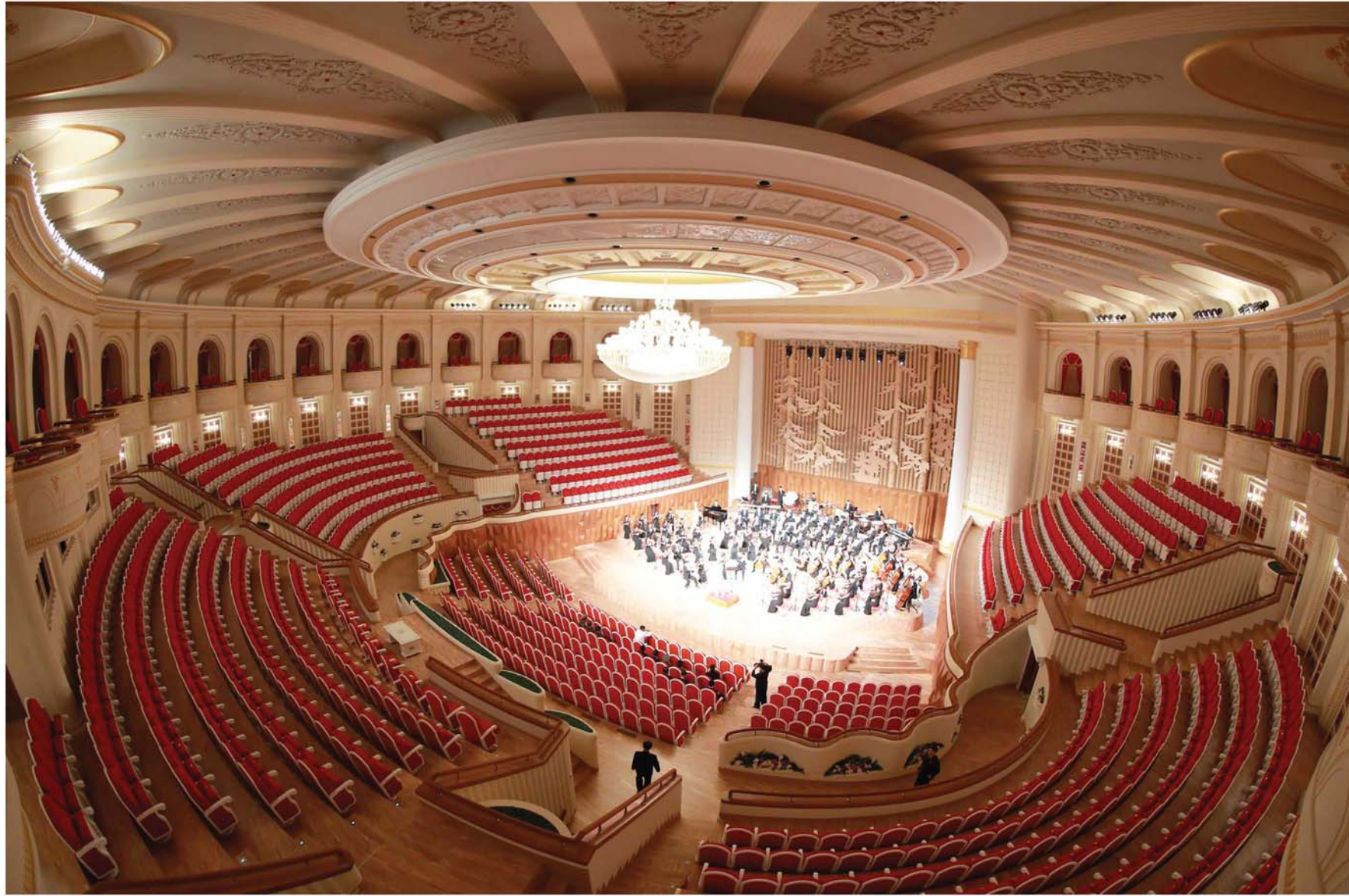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10일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음악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 주체음악예술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제일 부러워하시며 외우신것이 생울림극장이였다고, 우리 나라에도 훌륭한 생울림극장을 하나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음성이 귀전에 쟁쟁하다고 하시면서 지난 1월 모란봉교예극장을 생울림극장으로서의 특성을 완벽하게 갖춘 세계적수준의 관현악단 전용극장으로 개건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직접적인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보통강반에 새롭게 면모를 단장하고 일떠선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현대적인 건축음향기술이 안받침되고 고전미와 현대미, 예술화가 조화롭게 결합된 특색있고 화려한 건축조형미를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대전당, 로동당시대 사상예술강국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극장의 외부와 내부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극장 연주홀의 여러 위치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시며 음향특성들을 대비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조선로동당 창건절을 맞으며 개관되는것을 기념하여 극장에 대형피아노를 선물로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건축형식과 내용이 고상하고 부드러우며 황홀하고 웅장하면서도 현대적 미감과 고전미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음향설계에 준하고있는 만점짜리 음악홀을 건설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이 극장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설계도 독특하게 잘했고 시공도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우리 당창건 73돐을 맞는 전체 당원들과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극장을 받아안게 된 삼지연관현악단의 전체 예술인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예술활동의 훌륭한 거점을 마련하여준 당의 의도와 기대를 잊지 말고 높은 실력과 예술적기량으로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원형생음연주홀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극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이며 향유물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최상급에서 진행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글 김선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7일 백화원영빈관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여러차례 평양을 래왕하며 정력적으로 활동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석상에서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6.12공동성명리행에서 진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를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며 자신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긍정적으로 변화발전하고있는 반도지역정세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비핵화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량국최고지도부의 립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예정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서 반드시 큰 전진이 이룩될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석상에서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적문제들과 방법들에 대하여서도 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의견을 교환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백화원영빈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량국최고수뇌들사이의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있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나갈것이며 조만간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글 강수정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여 교원, 연구사들을 축하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과학기술인재육성의 최고전당 김책공업종합대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고 교원, 연구사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과 인민경제의 자립적발전,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대학이라고, 이 영예로운 대학의 창립 70돐을 맞으며 교원, 연구사들을 직접 만나 축하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사업에 헌신분투해가고있는 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따사로운 손길아래 태여나고 강화발전된 조선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이다.

주체37(1948)년 9월 27일 9개 학부에 70여명의 교원들과 1 500여명의 학생들로 창립을 선포하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오늘 수십개의 단과대학, 학부, 연구소에 300여명의 원사, 교수, 박사를 포함한 수천명의 교원, 연구사들과 1만 수천명의 학생, 박사원생들을 가진 굴지의 기술종합대학으로서 자기의 잠재력과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있다.

대학에서는 현대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공학수재교육과 련속교육체계가 세워져있는 대학에서는 세계적인 과학교육발전추세와 공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학과목들을 내오고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여 모든 학생들을 높은 탐구 및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고있다.

대학생들속에서 최우등생학급,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학급대렬이 계속 늘어나고 인터네트프로그람작성경연들과 전국적인 대학생경연, 전시회들에서 대학의 실력이 남김없이 떨쳐지고있다.

대학에서는 이와 함께 원격교육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선진적인 교수관리제와 콤퓨터에 의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나라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적극 추동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여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을 높은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고있다.

전자도서관에서

대학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제기되는 학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온 대학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주요 부문들을 종횡무진하면서 고온공기연소기술과 아크릴산합성공정의 통합생산체계와 같은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하였으며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도 대학에서는 첨단교육실현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끊임없이 혁신되고있으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건설이 완공을 가까이 하고있다.

그와 더불어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수놓아온 긍지높은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진은 더욱 가속화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정보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연구소들에서는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의 긴밀한 과학기술교류를 진행하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6월

나라의 화장품공업을 선도하는 공 장 으 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주체38(1949)년 9월에 창립되여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생산하여온 공장에서 《봄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화장품을 생산하기 시작한것은 18년전인 주체89(2000)년 5월부터였다.

당시 공장에서 개발한 《봄향기》화장품은 4종에 10여가지밖에 안되였지만 조선의 이름난 개성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들이였다. 피부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피부로화를 방지하고 피부탄성을 강화하며 미백효과, 주름개선 및 보습효과가 대단히 높은 이 화장품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녀성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장에서는《봄향기》화장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생산공정들에 대한 현대화, 정보화에 힘을 넣어 무균화, 무진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였다.

2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포함한 260여명의 기사, 전문가들로 과학기술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들에 의하여 천연다기능성고급화장품들이 계속 연구개발됨으로써 오늘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가지수는 250여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기능성비누와 세척제류, 각종 화장품용기와 수지포장재들을 생산하는 공정들도 새로 꾸려졌다.

ISO 9001 품질관리체계인증과 화장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인증, 국가품질인증 등을 받은 《봄향기》화장품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사진 변찬우 글 김태현

강원땅에 일떠선 나무모생산기지

지난 6월 강원도양묘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수십정보의 면적에 규모있게 자리잡은 수지경판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삽목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 등과 관리청사, 종합편의시설, 살림집들…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는 통합조종체계가 구축된것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양묘장이 완공됨으로써 도안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전변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산림과학기술을 열심히 습득하는 한편 종자준비와 경기질생산에 필요한 원료확보사업을 시기별로 선행시키면서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계단식으로 생산하여 도안의 시, 군들에 보내주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문광봉

양묘장에는 수지경판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삽목장을 비롯하여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된 나무모생산기지들이 꾸려져있다.

쌍선체만능고기배 《대경》호

남포시 와우도구역 갑문동에 위치한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선박전문가들의 관심속에 무어낸 쌍선체만능고기배 《대경》호를 진수하였다.

이 사업소는 자체의 힘으로 《황금해》계렬의 고기배들과 운반선, 봉사선을 비롯한 수십여척의 배들을 무어 어로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수산부문의 전형단위의 하나이다.

사업소에서는 풍부한 배무이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 새형의 현대적인 고기배를 무어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쌍선체배에 대한 선진과학기술문헌들을 조사하는 한편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동서해의 기상기후조건과 어로작업조건에 가장 알맞는 쌍선체만능고기배의 설계를 완성하였다.

이어 선박건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배무이공정들에 따르는 기술적지표들을 정확히 지켜 몇달안되는 기간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사업소에서 무어낸 첫 쌍선체만능고기배 《대경》호는 단선체배보다 속도가 매우 높을뿐아니라 복원성이 매우 커서 풍랑이 일 때도 중심을 잘 유지하므로 먼바다에까지 진출하여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다.

또한 갑판면적이 넓은것으로 하여 안강망, 뜨랄, 자망을 비롯한 다양한 어로작업을 모두 진행할수 있다.

오늘도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배를 더 많이 바다에 띄워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병훈

안강망, 뜨랄, 자망을 비롯한 다양한 어로작업을 진행할수 있는 어구장비들을 갖추고있다.

대동강반에 일떠선 봉사기지

수도 평양의 모란봉 청류벽에 이르면 그 맞은편 문수지구의 대동강기슭에 마치 물우에 떠있는 배를 련상케 하며 솟아있는 건축물을 볼수 있다.

지난 7월에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급양봉사기지로 개업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다.

이곳에는 각종 민물고기, 바다물고기실내못들과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들, 가공품매대들이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고급어족을 포함한 갖가지 신선한 물고기들로 봉사를 진행하는 식당은 조선과 세계의 이름난 물고기료리들을 맛보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항상 만원을 이루고있다.

크고작은 민물고기와 바다물고기실내못들에서는 철갑상어며 련어, 룡정어, 칠색송어 등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염을 치는데 200kg이상 나가는 철갑상어도 있다.

정갈하게 꾸려진 물고기즉석봉사홀들에서는 손님들이 실내못들에서 건져온 펄펄 뛰는 물고기들을 재치있게 가공하는 료리사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

자기가 선택한 음식감이 단 몇분만에 료리사들의 손에서 구미를 함뿍 돋구는 여러가지 회료리들과 초밥 등으로 만들어지는것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초밥식사실에서는 손님들이 신청한 초밥이 즉시에 주방으로

식당에는 민물고기와 바다물고기실내못들과 수산물가공품들을 봉사하여주는 상점도 꾸려져있다.

부터 벨트를 타고 식탁에까지 운반되여나오는 광경이 손님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준다.

전통적인 조선기와집형식으로 운치를 돋구는 민족료리식사실이며 연회도 할수 있는 봄맞이식사실, 동양료리식사실과 서양료리식사실, 가족식사실들에서도 손님들은 훌륭한 료리와 친절한 봉사로 큰 감명을 받아안는다.

물론 그들이 식당의 인기를 높이는 주역들인 김영호, 김은성, 김철을 비롯한 전문료리사들의 능력과 솜씨를 아직 다는 알수 없다.

이곳에는 수산물가공품들을 봉사하는 상점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하나같이 국내의 수산물생산 및 가공기지들에서 생산된것이다.

하여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대한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사진 안철룡, 신충일 글 김은영

흥성이는 릉라유희장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여나고 능수버들 휘늘어진 릉라도의 풍치는 오늘 릉라인민유원지로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어울려 더더욱 아름답다.

주체101(2012)년 7월 준공된 때로부터 언제나 쉬임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유원지의 모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중에서도 언제나 떠들썩하고 웃음소리가 높은 곳은 릉라유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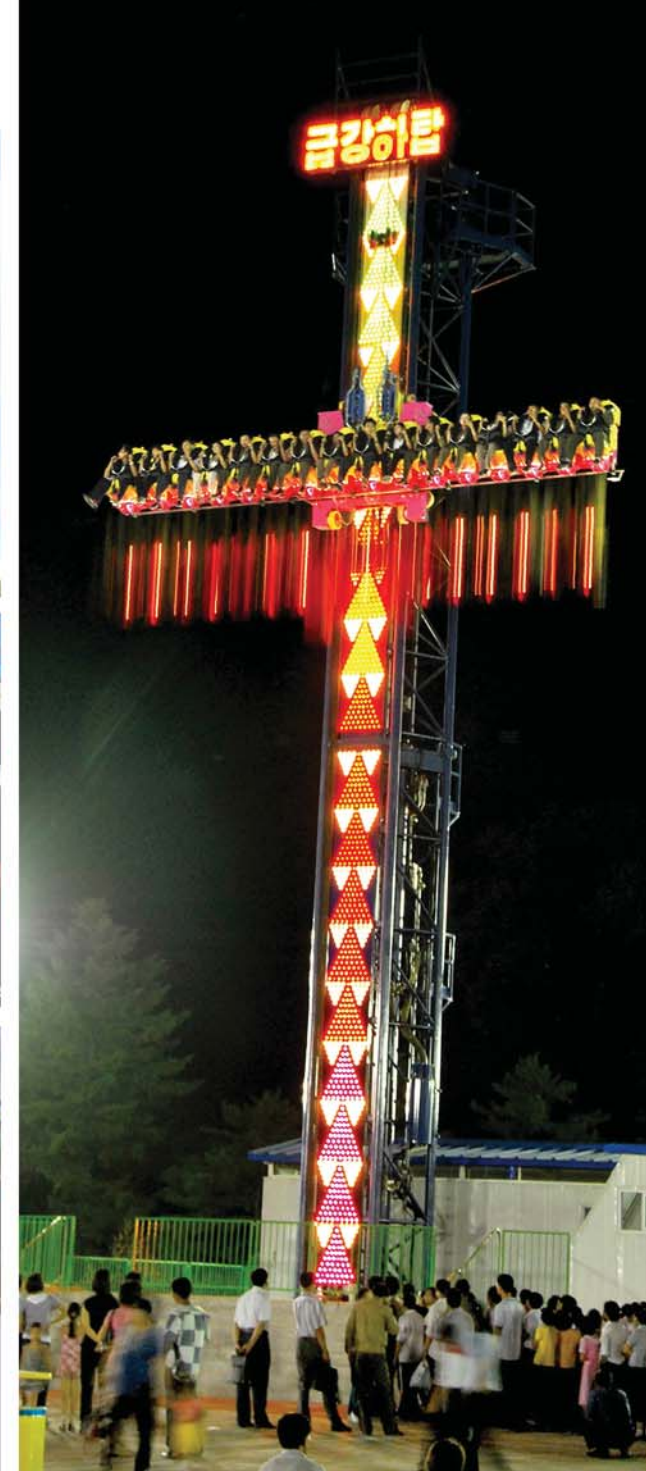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여져있는 유희장에 들어서면 급강하탑과 휨성회전반, 우주비행반, 수직회전그네, 회전매, 회전비행기 등 형태도 동작도 천태만상인듯싶은 유희오락설비들을 타며 저저마다 환성을 터치는 청춘남녀들의 모습도 볼만하지만 그들을 보며 함께 소리를 지르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관람자들의 모습도 이채를 띤다.

손님들을 싣고 구역사이를 오가는 유람기관차에서는 관성단차며 문어회전반, 꼬임회전반을 2구역에서 탔으니 1구역의것도 빨리 타봐야 시원할것 같다고 젊은이들마다 성수가 나서 떠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로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 비꼈다.

들어가면서 절대로 웃지 않겠노라고 장담하다가도 거울에 비치는 제모습을 보면 그 결심이 물거품처럼 되고마는 웃음집이며 출로를 찾으려고 한바탕 애를 먹는 거울집도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경마, 뽀트경주 등 각종 오락기재들이 있는 전자오락관과 모험적인 바다려행도 해보고 우주세계에도 가보게 되는 릉라립체률동영화관도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청소년들로 법석인다.

곳곳마다에 꾸려진 청량음료매대들과 국수집, 차집들도 한가정, 한식솔처럼 다정히 마주하고 유희를 함께 타던 기쁨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로 차넘친다.

어둠이 깃드는것과 함께 유희장의 불빛은 더욱 빛을 뿌리고 곳곳에서 음악소리도 높이 울려가는 속에 평양의 명승 릉라도는 밤이 깊도록 잠들줄 모른다.

사진 리철진 글 문광봉

산골분교의 교육자가정

조선의 제일 큰 호수인 수풍호반의 산수가 한데 어울려 그림같이 안겨오는 평안북도 벽동군의 한 산골마을에 30여년동안 교단에 서있는 교육자가정이 있다.

벽동군 송련고급중학교 창주분교 교원들인 남편 김경수와 안해 김정옥이다.

선천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벽동군 마전중학교(당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김경수는 주체71(1982)년 5월 어느날 송련중학교의 교원인 아버지로부터 창주분교의 실태를 알게 되였다.

분교가 리소재지에서 수십리 떨어진 마을에 있는것으로 하여 학교의 교원들이 교대하는 식으로 그곳에 나가 수업을 하다나니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시원치 못했다.

(나라의 훌륭한 교육시책으로 외진 산골의 몇명안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분교가 세워졌는데…)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할수가 없었던 그는 그해 가을 벽동군 남서중학교 교원인 김정옥과 가정을 이룬 후 주체73(1984)년 8월 수풍호의 배길을 따라 분교로 들어왔다.

부부교원이 왔다고 십여세대밖에 안되는 창주마을의 어른아이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와 반겨맞던 그때 그들은 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더욱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부단히 탐구하고 새로운 교편물들을 갖추어나갔다.

그리고 낮에는 수업을 하고 저녁이면 늦게까지 나무를 떠다심고 주변정리를 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기울이였다.

돌담을 쌓고 산비탈을 깎아서 운동장을 번듯하게 넓히고 운동기재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았다.

날이 감에 따라 학생들의 실력은 높아갔고 마침내 분교는 군적으로 가장 우수한 교육단위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나라에서 김경수를 로력영웅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후 그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분교에 처음으로 심은 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라온 지난 30여년동안 분교에서는 수백명의 졸업생들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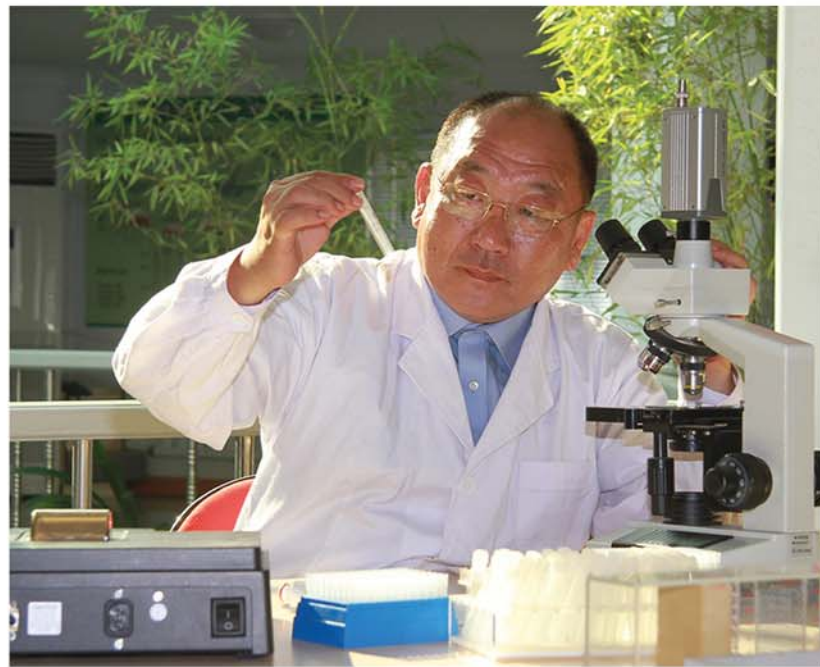
그중에는 그들의 아들인 김선남도 있다.

이곳에서 나서자라 평북종합대학 신의주제2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지난 4월 부모들이 섰던 교단에 섰다.

그와 함께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강영심도 분교에 자기의 첫자욱을 새기였다.

전세대 교육자들이 발휘한 산모범을 마음속깊이 새긴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꽃피워 가정을 이루고 산골마을에 삶의 뿌리를 내리였다.

이런 교육자가정들이 있어 조선의 한끝 창주땅에서는 교정의 종소리가 계속 울려퍼지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병훈

지배인 조룡철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축산의 과학화에 힘을 넣어

봄이면 꽃바다, 가을이면 과일바다가 펼쳐지는 평양시 삼석구역 원흥지구에 주체100(2011)년에 건설된 대동강돼지공장이 자리잡고있다.

돼지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을뿐만아니라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단위로 알려진 공장에서는 최근에도 축산의 과학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사료를 40%나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140%로 높이며 고기맛 또한 좋은 돼지품종을 보존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 마련, 최신인공수정기술을 도입하여 해마다 많은 우량종새끼돼지를 생산…

이러한 성과들에는 지배인 조룡철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슴배여있다.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선결조건인 종자문제를 해결하자면 확보한 우량종들의 퇴화를 막고 그것을 보존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체계를 세워야 하였다.

조룡철지배인은 우량품종선별프로그람을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여기에 달라붙었다.

종업원들도 적극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우량종돼지들의 래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방대한 자료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프로그람개발을 꾸준히 다그쳤다.

사양관리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동시에 내미느라 누구도 편히 쉬여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지배인을 비롯한 전체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은 끝끝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오늘 대동강돼지공장의 선진적인 축산기술과 경험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사진 리학명 글 최의림

우량종돼지를 보존할수 있는 우량품종선별프로그람을 개발완성하여 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새롭게 변모된 농장마을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문명강국을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최근년간 많은 거리와 마을들이 일신되고있다.

강원도에서는 원산시 송천남새전문협동농장마을이 날을 따라 높아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지향에 맞게 새롭게 변모되였다.

푸른 숲 설레이는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게 들어앉은 마을에는 학교와 문화회관,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유치원과 탁아소, 상점, 운동실이며 청량음료매대,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진 송천원 그리고 수십동에 1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연 건축면적만 하여도 1만 8 000여㎡에 달하는 이 건물들은 농업근로자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려가도록 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받들고 떨쳐나선 강원도안의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다.

도시의 현대적인 거리를 방불케 하는 이 새마을은 농업근로자들에게 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안겨주고있다.

2층으로 된 원산시 송천고급중학교의 해빛밝은 교정에서는 농장원들의 자녀들이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고있으며 유치원과 탁아소에서는 행복넘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영농과학기술지식을 비롯하여 알고싶고 보고싶은 자료들을 아무때나 볼수 있는 전자열람실과 일하면서 공부하는 원격교육대학강의실 그리고 토양분석실과 실험실들까지 갖추어진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농장의 젊은이들이 래일의 꿈을 꽃피워가고있다.

문화회관이며 송천원에서의 다양한 체육문화활동은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하여준다.

그와 함께 알곡증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열의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대현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진 송천원, 농업과학기술보급실, 문화회관, 학교 등이 일떠섰다.

년로자들의 정든 집

로인들은 양로원에서 정상적인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젊음을 되찾고있다.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년로자들의 생활도 국가에서 잘 돌봐주고있다.

최근년간 각 도들에 양로원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난해 9월에는 황해북도양로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위치하고있는 양로원에는 25개의 침실과 목욕탕, 리발실, 세탁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이 있다.

그리고 치료실과 함께 오락실과 영화감상실, 운동실, 휴식터 등도 있다.

로인들의 심리와 기호 그리고 시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양로원에서 지금 100여명의 년로자들이 랑만적인 생활을 펼쳐가고있다.

풍부한 영양섭취와 적당한 로동, 유희와 운동을 포함한 충분한 휴식은 년로자들의 생활에서 자못 중요하다.

하여 양로원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친자식의 심정으로 년로자들의 일과생활에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건강을 극진히 보살피고있다.

년로자들의 마음을 보다 뜨겁게 하는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회적인 관심이다.

명절 등을 계기로 양로원에는 도와 군의 일군들뿐아니라 여러 기업소, 단체들과 주민들, 청소년들이 수많이 찾아온다

그들로부터 지성어린 물자들을 받아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는 년로자들의 락천적인 모습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의 모습이다.

그래서 행복했던 지난날에 대한 추억은 로년기의 필연적인 과정이라지만 이곳 양로원의 년로자들은 결코 회상을 즐겨 아니한다.

오늘도 이렇듯 행복에 겨운데야.

하기에 이곳 황해북도양로원에서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가 더욱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사진 최명진 글 박영조

사슴떼 흐르는 산촌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붉은 밤색의 몸통에 흰 점무늬들이 있는 사슴을 장생불로를 상징하는 동물의 하나로 일러오고있다.

그것은 3년생이상인 수사슴에게서 매해 돋아나는 한쌍의 어린 뿔을 잘라 만든 고려약인 록용을 개성고려인삼과 함께 으뜸가는 고려약재로 꼽기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사슴의 보호증식을 위해 생태환경이 좋은 곳들마다에 사슴목장들을 꾸리고 사슴을 널리 기르고있다.

황해북도 린산군에 있는 린산사슴목장도 그중의 하나이다.

목장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골짜기와 언덕들을 방목지로 하고있는데 여기에는 사슴이 좋아하는 삽주, 단너삼, 당귀, 가시오갈피나무를 비롯한 약용식물들과 개암나무, 피나무 등이 많이 자라고있다.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골짜기에는 사시장철 맑은 물이 흐르고있다.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방목을 진행하는 목장에서는 풀판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며칠간씩 차례로 옮겨가는 순환식방목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른 봄에 사슴을 방목시킬 때에는 점차적으로 풀판에 내놓아 독풀중독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고 여름철 무더운 낮에는 사슴들이 더위를 먹지 않게 나무그늘에서 쉬우면서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풀을 뜯어먹게 한다.

뿐만아니라 방목과정에 승냥이, 여우 등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사슴들을 보호해주고있다.

목장에서는 사슴번식에 유리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해마다 조성하는 자연풀판만 하여도 5정보나 된다.

주체63(1974)년 창립당시 70마리밖에 안되였던 목장에는 오늘 수백마리의 사슴떼가 흐르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은영

인민예술가 김동환과 그의 작품들

조선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하여》

김동환은 제10차 중국 베이징국제예술박람회에서 10대최고영향력을 가진 예술가상장을 받았다.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인 몰골법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이바지한 미술가들중에는 인민예술가 김동환도 있다.

주체50(1961)년 개성시의 농촌마을에서 태여난 그는 고향땅의 모습을 그림에 담고싶은 동심에서부터 미술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학교의 미술소조에 망라되여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고향마을이며 글읽는 소리 랑랑히 울리는 모교 등을 화폭에 옮겨갈수록 그의 가슴속에서는 나날이 아름답게 변모되는 조국의 현실을 방불하게 보여주는 화가가 되려는 꿈이 커갔다.

하여 평양미술대학(당시)을 졸업하고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가 되였다.

그의 첫 작품은 조선화 《탄부혁신자》이다.

축하의 꽃목걸이를 받은 탄부혁신자의 긍지에 넘친 모습, 《하루계획 300% 넘쳐 수행!》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속보판, 석탄을 가득 싣고 달리는 전차들…

작품은 성공적이였고 이를 계기로 그의 이름은 전문가들속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김동환은 시대의 벅찬 숨결을 파악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공감할 때 진실하고 아름다운 화폭,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그후 김동환은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조국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편답하며 줄기찬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가 지난 30여년동안 창작한 작품들은 예술적형상의 시각적선명성과 섬세성, 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높은 표현력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고있다.

이 나날 그는 국보적인 작품 10여점을 비롯하여 1 000여점의 미술작품들을 내놓았다.

그가운데는 조선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하여》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미술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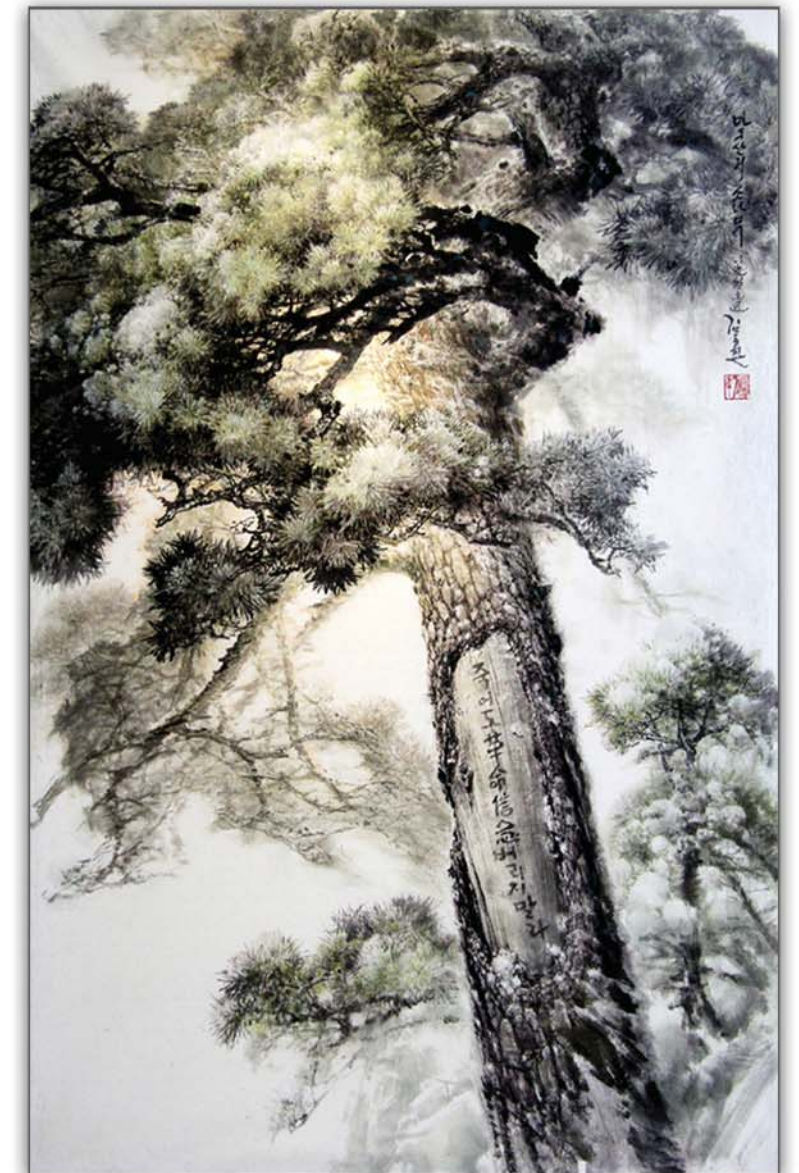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미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한 그에게 인민예술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오늘 김동환은 약동하는 시대정신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사색과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조선화 《넓은 대지를 박차며 질주하다》

조선화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조선화 《신평가을의 계곡》

조선화 《마두산의 소나무》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였다.

축전의 기본형식인 장편예술영화, 기록 및 단편, 만화영화경쟁에는 조선과 중국, 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 영국 등 10여개 나라에서 만든 영화들이 출품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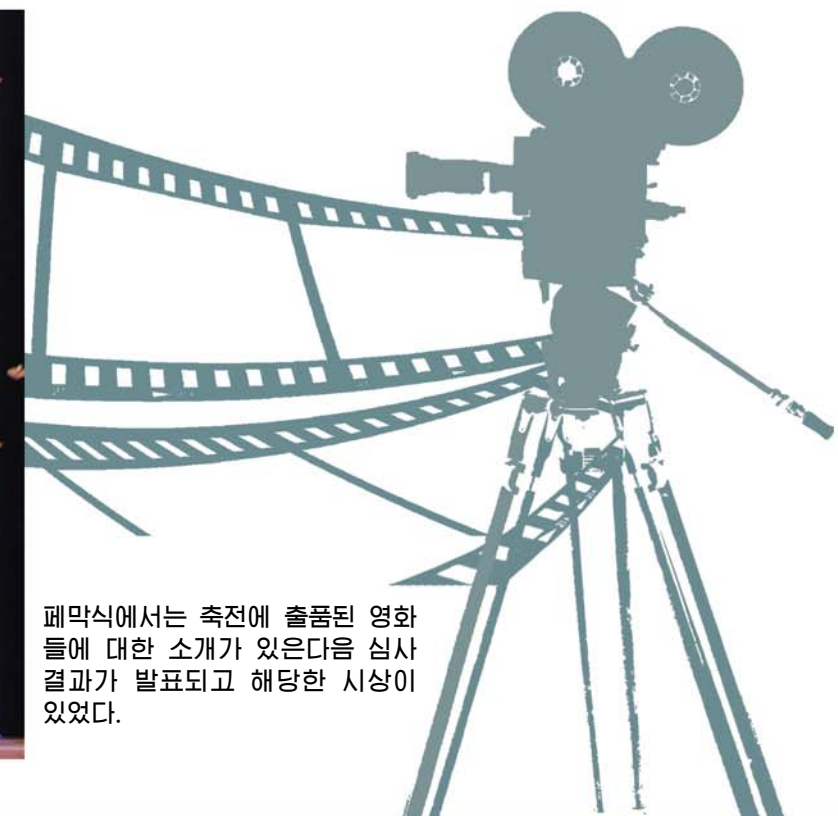
평양국제영화회관과 대동문영화관, 개선영화관, 락원영화관, 청년중앙회관을 비롯한 시안의 상영장소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인류의 지향,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 풍속 등을 각이한 시대적배경속에 펼친 영화들은 배우들의 진실하고 생동한 연기형상과 독특한 촬영수법 등으로 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축전에서는 특별상영과 통보상영, 영화교류회도 진행되였다.

축전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영화들에 최우수영화상과 문학상, 연출상, 촬영상 등과 국제심사위원회 특별상, 축전조직위원회 특별상이 수여되였다.

사진 홍태웅 글 최의림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장

폐막식에서는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에 대한 소개가 있은다음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민속무용

상모춤

조선의 민속무용들중에는 상모춤도 있다.

상모를 돌리며 여러가지 춤동작과 기교를 보여주는 상모춤은 전통적인 농악무에서 남자들이 추는 특색있는 춤이다.

상모춤에서 기본소도구로 되는 상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농악무를 할 때 쇠잡이, 소고잡이들이 쓰는 상모가 달린 모자(전립)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모자꼭지에 매달린 깃털이나 흰 종이오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상모춤에서 상모를 머리에 쓴다고 할 때에는 모자를 의미하는것이고 상모를 돌린다고 할 때에는 모자가 아니라 그 꼭지에 매달린 깃털 또는 종이오리를 의미하는것이다.

춤에 리용되는 상모의 종류에 따라 소상모춤, 대상모춤, 털상모춤 등 여러가지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외상모돌리기, 내상모돌리기, 량상모돌리기, 번개상모돌리기, 좌우치기 등 재치있고 다양한 기교들이 있다.

상모춤은 여러명의 상모군들이 같은 또는 다양한 상모돌리기를 동시에 수행하는것으로서 집단적으로 째인 률동의 조화미를 보여준다.

대상모춤은 한두명의 상모군이 열두발상모를 돌리면서 여러가지 장끼를 보여준다.

털과 같은 가벼운 부포를 전립꼭지에 달고 돌리는 털상모춤은 부드럽고 섬세한 률동감을 자아낸다.

흥겹고 다양하게 변주되는 농악에 맞추어 다리굴신과 목놀림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상모를 경쾌하게 돌리며 추는 상모춤은 조선인민의 락천적인 생활감정을 독특한 무용기교로 보여주는 특색있는 춤인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오늘날 상모춤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보다 대중적으로 추어지는 한편 무대(야외무대포함)예술무용으로 발전하여 《상모춤》,《소고와 상모》 같은 무용작품들도 나왔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들 그리고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무대들에서 상모춤은 농악무의 기본종목으로, 무대예술무용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진 최설희 글 고철수

어머니날을 맞으며

어머니날을 맞으며 기념품상점을 찾은 자식들

어머니날(11월 16일)이면 조선의 모든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남포시 항구구역 하비석동에 있는 로희숙녀성의 집에도 즐거운 분위기가 넘친다.

딸들이 드리는 축하의 인사도 받고 귀여운 외손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흘러온 나날들을 되새겨보는 로희숙녀성이다.

딸들만 낳아 남편에게 미안스럽던 일이며 아들 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마음다지던 30여년전의 일들이 엊그제련듯 생생히 떠오른다.

자식들의 옷차림에 늘 마음쓰던 일들이며 동네어른들과 학교선생님들을 만날 때면 꼭꼭 인사를 하도록 타이르던 때도 생각키운다.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자라는 자식들을 보며 미처 몰랐던 제도의 고마움을 느끼던 때도 있었고 학교 전기간 최우등을 하고 손풍금도 잘 타서 동네사람들속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두 딸자식이 차례로 아버지처럼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갈 때 손저어 바래주던 날들도 있었다.

주체91(2002)년 10월 사랑하는 남편이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에 전사한 후 그는 사회주의애국렬사의 안해로서 애국의 뜻을 이어갈 마음, 자식들앞에 떳떳한 어머니로 나설 마음으로 시안의 한 려객운수부문에서 로동생활을 시작하였다.

하루같이 제일 먼저 일터로 나와 말은 뻐스를 알뜰히 관리하고 필요한 공구와 예비부속품도 미리 갖추어놓아 무사고주행을 보장하는 그를 누구나 존경하였다.

한 운전수의 안해가 앓을 때에는 꿀도 구해다 주고 부모없는 청년이 장가갈 때에는 결혼식상도 성의껏 차려준 그를 언제부터인지 기업소의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불렀다.

주체104(2015)년 10월 그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고 지금 남포시인민위원회에서 사업하는 맏딸 리윤희와 남포백화점에서 일하는 둘째딸 리은주 역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제날의 로희숙녀성의 모습 그대로이다.

오늘도 로희숙녀성은 자식들과 함께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계속 하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강수정

소 식

사진 조선중앙통신

제14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무역거래와 협조, 과학기술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년로자들을 위한 공연이 진행되였다.

년꼿 : © 조선화보사 2018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서철남 13606-1881156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신평금강의 초대바위 사진 송대혁